

군산시, 신협전북지부와 정책 펼쳐

군산사랑 희망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신협 장기부실채권 49억9000만원 빛 탕감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의 신협 전북지부가 손잡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16일 두 기관은 군산사랑 희망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협이 보유한 장기부실채권 49억 9000만원의 빛 탕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가 올해 4월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책인 군산사랑 희망 프로젝트의 첫 결실로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의장, 신영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이문규 신협중앙회 전북본부장

과 군산지역 10개 신협(군산지역 평의회장 박운곤) 대표자들을 비롯해 군산시 서민금융지역협의체 등이 참석했다.

이 날 빛 탕감은 신협중앙회 전북지부와 관내 10개 지역신협에서 기부한 채권으로 이루어졌으며 탕감금액은 약 49억 9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은 662만원, 이자는 985만원에 이른다.

이번에 소각되는 채권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이며 파산,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갚지 못한 장기 연체 채권 가운데 소멸시효

가 완성되거나 금융기관에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결산 처리한 부실채권이다.

이 날 탕감을 통해 그동안 빛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303명의 시민들이 빛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시는 민선 7기에 들어서 서민금융복지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 서민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3월 전국 최초로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주축으로 금융권과 자활센터 등 8개 유관기관과 서민금융통합 지역협의체를 구축하여 기관별 지원시책을 공유하고 종합홍보를 제작 등,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지원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시와 신협중앙회는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의 가계 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해 상호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이문규 본부장은 "앞으로도 신협은 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에 우호적인 금융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며 감당하기 벅거운 빛으로 채무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 없는 지역 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협중앙회 전북지부와 관내 신협 대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부채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이 빛 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 재기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는 도시재생 청년 서포터즈를 발족해 7월부터 도시재생 청년서포터즈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한다.

도시재생사업 청년 서포터즈 발족

군산시, 7월부터 아카데미 강좌 개설

군산시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도시재생 청년 서포터즈를 발족해 7월부터 도시재생 청년서포터즈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제보선창과 신영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에서 지난 15일 도시재생 청년 서포터즈 아카데미 개강식이 열리며 청년참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년 서포터즈는 지난 1일부터 지역 대학생 등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 30명의 청년 서포터즈를 꾸렸고,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각자의 전공 등 관심 분야에 맞는

팀으로 배정해 홍보, 창업 등의 전문 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청년 서포터즈 아카데미는 '오라 군산!', '보라 군산!', '하라 군산!'의 3개 팀으로 나누어 오리엔팅 도시재생 사업의 홍보 및 축제 분야, 보라팀 '문화·예술 활동분야', 하라팀 '사업 아이디어 발굴, 도시재생사업 개선 방향 및 청년 창업 분야'의 교육과 도시재생 서포터즈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포터즈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도시재생사업에 실질적인 청년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동 주민공모사업, 주민제안사업 등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지역대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첫 발

지역 대학생 277명, 147개 사업장 배치 진로탐색

익산시가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알려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첫 발을 내디뎠다.

16일 익산시는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이번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 관계자와 대학생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와 진행방향과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한 달 동안의 진로체험 일자리사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3월 지역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내 주요 기관과 단체, 기업체, 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진로탐색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175개 사업장에서 332명 모집을 요청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전라북도 익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거쳐 예산 4억6400만원(도비 30%, 시비 70%)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지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에 참여 신청을 받아 536명이 지원했고 추첨을 통해 277명의 학생들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147개 사업장에 배치돼 오는 8월 12일까지 4주간 진로체험 기회를 갖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익산시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이라며 "이번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를 체험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18일 서울서 개벽포럼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병수) 원불교사상연구원과 서울 은덕문화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5회 개벽포럼이 18일 오후 은덕문화원에서 열린다.

개벽포럼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인사들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촘촘혁명 이후에 한국 사회가 나아가 할 방향 모색을 위한 대화의 자리로 지난 3월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평생을 생명운동과 귀농운동에 헌신해 온 이병철 생태귀농학교 교장을 초청해 '살림과 개벽'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귀농본부설립 초대 삼담대표를 역임한 이병철 선생은 1996년 자연과 더불어 생명을 가꾸는 새 삶을 살자는 일종의 '라이프스타일 개벽'을 주창하며 귀농운동을 전개하고, 2001년 지리산생명평화결사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도법 스님의 생명평화운동에도 참여했다.

대표 저서로는 '밭의 위기, 생명의 위기(1994)'를 비롯해 귀농지침서 '귀농, 아름다운 삶을 찾아서(1999)', '나는 늙은 농부에 미치지 못하네(2007)', '생태지집 '당신이 있어(2007)', '심령한 짐승을 위하여(2018)' 등이 있다.

한편, 이날 포럼은 '귀농'이나 '생명 평화'라는 말이 너무 흔한 단어가 된 가운데 지난 20년 동안, 이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정착해 왔으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정인천 기자

군산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군산시는 청년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년 당사자의 참신하고 기발한 의견을 청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9년 군산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분야는 오는 9월 개소예정인 군산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홍보 아이디어 제안과 청년 일자리창출, 주거·생활·복지,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제안은 모두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만 19이상 39세 이하의 군산청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모문을 참조해 E-mail(kcj0234@korea.kr) 또는 일자리창출과에 방문이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16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김종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제8대 군산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김경구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40여 직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난 1년 시정을 발판으로 지속가능한 군산발전과 시민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8대 군산시의회는 지난 1년의 수고와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연구하고 발로 뛰며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물론 군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익산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증 점검

익산시보건소(소장 한명란)는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이들

동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역 병원 등 19곳으로 병각담수, 병·온수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여름철에 주로 발생해 폐렴을 유발하는 급성호흡기질환이다.

레지오넬라균은 주로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과 샤워기, 목욕탕수 등의 오염된 물에 잠복해 있다가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전파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전신권태감, 미른 기침,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을 등

반하며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15~20%의 치명률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고연령층, 만성폐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폐렴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대형건물의 냉각탑은 1년에 2~4회 청소 및 소독 실시와 적절한 수온관리를 통해 레지오넬라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검사결과 기준치 이상의 균이 검출될 경우 소독 조치 후 재검사와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인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